

##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강태수\*\* 신진욱\*\*\*

‘노란 리본’과 ‘폭식 투쟁’이 상징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두 반응은 한국사회가 공감과 혐오라는 두 얼굴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논문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과 혐오를 각각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의 전형적인 의식 구조와 생활세계의 기초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연구는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다른 한편으로 「일베」 사용자들을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의 쟁점화에 반대하여 혐오 담론을 생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주요 관심은 이들의 주된 관심과 행위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들은 각각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의 구조를 보여주는지, 어떤 개인적 생애경험의 서사로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노란 리본’과 ‘폭식 투쟁’이 단순히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사건 발생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2019년 2월)을 대폭 수정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이 원고의 일부는 한국문화사회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았다(NRF-2018S1A3A2075609).

\*\* 주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졸업. ktsfrank@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ocioshin@cau.ac.kr.

과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 여부, 이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려는 의지 여부, 사회와 타인의 의미에 관한 가치관과 그에 연결된 생애서사의 구조적 차이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와 동시에 이 연구는 두 면접참여자 집단 모두, 그 생활세계의 심층에는 양면적 잠재성을 가진 복잡한 체험적 배경이 있었고 새로운 삶의 경험들을 통해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제어:** 세월호, 공감, 혐오, 생활세계, 일간베스트(일베)

## I. 서론

2014년 4월 16일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이 사건이 한국사회에 남긴 질문과 숙제는 아직까지 충분히 토론되지도 해결되지도 않았다.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재난대비시스템의 무능, 정치와 기업의 이윤제일주의, 국가조직들의 관료주의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난 원인들을 규명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더불어 드러난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한국사회가 약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혐오라는 상반된 두 얼굴을 함께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기억하자는 취지의 '노란 리본'과 일부 「일베」 사용자들이 벌인 이른바 '폭식 투쟁'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한국사회의 두 반응을 상징한다. 한편에 재난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반대편에는 그와 같은 도덕적 태도에 극단적인 거부감을 보이거나 그것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물론 대다수 시민의 여론은 그와 같이 선명하게 대조되진 않지만,

2019년에도 여전히 한국사회는 '세월호'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태도가 갈라져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언론사 YTN의 의뢰를 받아 2019년 11월 8일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세월호 재수사 개시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53.2%,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42.9%였다(「리얼미터」, 2019년 11월 11일자 '핫이슈' 리포트). 2019년 4월 16일에 역시 「리얼미터」가 언론사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 '매우 찬성'이 37.1%, '찬성하는 편'이 20.5%로 찬성하는 응답자가 총 57.6%로 많았지만, '반대하는 편'이 13.2%, '매우 반대'가 24.1%로 40%에 가까운 응답자가 반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오마이뉴스」, 2019년 4월 17일자 보도). 이처럼 세월호 참사에 관한 공적 행위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는 여전히 한국사회를 나뉘놓고 있다. 도덕적 낙인과 비난만으로 풀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일베」 사용자들의 '폭식투쟁'이 있는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을 패륜적 '괴물'로 심판하고 그러한 사회적 병리성의 원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진단하는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물론 우리는 그런 비난들에 담긴 공분에 공감할 수 있고,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유보 없이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목표를 위해 우리가 또한 주시해야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일부 「일베」 사용자들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흔하진 않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방식과 감정구조, 타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 안에 다양한 강도와 양상으로 퍼져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슬픔을 행동으로 함께 한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거기에 함께 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이 나눌만한 보편적인 무엇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긍정적 핵심이 무엇인지를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는 선인과 악인, 도덕적 인간과 일탈적 인간을 범주적으로 구

분하고 그 일탈의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세월호 이슈에 관한 태도의 측면에서 상반된 전형성을 보이는 두 집단의 보다 복잡한 내적 의미세계와 생애체험적 기반을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 어떤 이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면서 동행하는데, 다른 이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단지 가식이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뿐이라고 여기고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가? 그러나 또한 세월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불안정하고 모순 많은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이라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그런 행동에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순전히 증오로 뿔뿔 뭉친 괴물이 아니라면 그들은 자신의 혐오 감정을 어떤 언어와 서사로 설명하는가?

위와 같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 연구는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 그 같은 사회의 움직임에 격렬히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혐오 담론을 유포했던 사람들을 심층면접하여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동기와 관심이 무엇이었는지, 이들은 각기 어떤 세계관과 가치체계 속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 이들이 자신의 개인적 경험의 특정한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구체화하려 한 인간세상의 모습이란 어떤 것이었는지를 비교 분석했다. 그와 더불어 두 대조적인 집단의 태도가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는 회색지대의 면접참여자들을 포함시켰다.

아래에서 이 논문은 '노란 리본'과 '폭식 투쟁'이 단순히 세월호 참사라는 단일 사건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사건의 발생원인과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 여부, 이 참사를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이해하려는 의지의 존재 여부, 모든 개인들에게 사회와 타인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세계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지향 전반의 심층적 차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연구에서 표층의 행동상의 대조되는 전형성에도 불구하고, 의식과 체험의 심층으로 내려가면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한 비전형성의 세계가 공감과 혐오의 도덕적 구분선을 가로질러 작동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 II. 선행연구와 이론적 기초

### 1. 문제의식과 선행연구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자본, 국가, 관료제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청해진 해운의 이윤 추구는 세월호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맹목적이었다. 세월호의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지만, 청해진 해운은 화물과 탑승객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 개축했음이 밝혀졌다(진실의힘세월호기록팀, 2016).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 대부분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정유섭, 2015: 32).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 기업이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이 9억 원을 넘었지만, 2013년도에 승무원 안전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54만 원에 불과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4: 154).

국가 역시 기업들의 맹목적인 이윤추구를 감독하고 규제할 공적 의무를 방기해왔음이 드러났다.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의 활동을 방해한다면 서 정부는 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했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4: 65-79), 선박 검사, 안전운항 지도·감독, 해난구조처럼 선박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한 관리·감

독을 민간 기관에게 위탁했다(세월호특조위조사관모임, 2017: 167-170). 게다가 정부 관료와 민간 기업 간에 심지어 유착관계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해운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진실의힘 세월호기록팀, 2016: 447-509).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료제는 위기상황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했다. 해경 지휘부는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구조계획을 세우지도 못했다. 구조대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해경 지휘부는 현장 정보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했고, 소속이 다른 구조대들의 구조작업을 조율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나아가 해경 본청은 퇴선 방송을 지시할 수 있었던 최소 네 번의 기회를 놓쳤다(진실의힘 세월호기록팀, 2016: 240-265; 세월호특조위조사관모임, 2017: 19-20).

이처럼 세월호의 비극을 초래한 다양한 원인들을 규명하여 정부와 사회를 개혁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참사 직후의 애도의 시간이 지나고 진상조사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자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 초기에는 정부 비판과 진상규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2014년 4월 28일~30일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2%가 세월호 사고에 대한 정부의 수습과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113호, 2014년 5월 2일). 2014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던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가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밝혀지지 않았고, 응답자의 94%가 “세월호 관련 현재까지의 검경 발표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데일리 오피니언」 제115호, 2014년 8월 1일).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시점에 이미 600만 명이 넘었다(권영빈, 2017).

그러나 이후에 나타난 양상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여론과 담론, 선거 결과, 그리고 혐오 행동이라는 세 측면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론과 담론의 변화가 곧 일어났다. 애도 분위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태도, 소비 둔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담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고조된 정치사회적 갈등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등의 경향이 확산됐다. 김영옥·함승경(2015)의 연구는 구조수습기(2014년 4월16일~5월 19일)에는 '참사' 담론 대 '사고' 담론, 원인·책임 규명기(2014년 7월9일~22일)에는 '진상규명' 담론 대 '보상' 담론, 대책 수습기(14년 10월 31일~11월18일)에는 '기억' 담론 대 '피로감' 담론의 갈등구도가 지배적이었다고 분류하고, 사고 직후에는 '참사' 담론이 대다수 사람의 지지를 받은 것과 달리 원인·책임 규명기와 대책 수습기에는 유가족들이 너무 많은 '보상'을 받는다는 담론과 이제는 '피로감'이 온다는 담론 역시 적잖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했다.

둘째, 정치 영역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2014년 6·4 지방선거와 7·28 재·보궐 선거에서 그 직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강원택, 2015; 이현우, 2015).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등 9석을 차지하여 총 8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을 앞섰지만, 새누리당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다른 모든 선거에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광역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이전 지방선거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었다. 선거 이후에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에 관한 억압적 태도가 두드러졌다(권영빈, 2017). 더구나 정부가 특조위 시행령안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려 했을 때와 정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특조위가 해산될 위기에 처했을 때 특조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기까지 했지만 정부여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적은 없었다(박종희, 2016:

254).

셋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폭넓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극단적인 혐오 행동이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2014년 9월 6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중이었던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100여 명의 「일베」 사용자들이 피자과 치킨을 주문해서 먹은 이른바 '폭식투쟁' 사건과 온라인상에서 일부 인터넷 사용자가 이 행동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인 현상은, 한국사회에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진상규명에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연구문헌들은 한국사회 내의 상반된 태도와 반응을 얼마나 주목했고 어떻게 설명했는가? 세월호에 관한 선행연구의 주제는 크게 세 주제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야기한 정신적, 심리적 영향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유가족과 생존자가 겪고 있는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그 극복과정을 동반하며 돕기 위한 사회적 과제에 관한 것이었다(김왕배, 2014; 김명희, 2015; 김은미, 2016; 이현정, 2017). 둘째 주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한국의 사회구조적 조건(김홍중, 2015; 장덕잔·조병화·이재열 외, 2015; 홍성태, 2015; 강수돌, 2016; 이재열, 2017), 국가권력과 정부시스템의 문제(지주형, 2014; 최원, 2014; 김동춘, 2015; 진태원, 2015), 한국사회의 지배적 이념과 가치지향(윤성이, 2015; 강원택, 2017; 박종희, 2016; 2017) 등이다. 셋째 주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여론과 담론, 보도 경향의 특성과 변화 추이다. 이 연구들은 세월호 사건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해석되는지, 행위자 집단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묻고 있다(김종엽, 2014; 김수미, 2015; 김영욱·함승경, 2015; 이선민·이상길, 2015; 이완수·배재영, 2015; 홍주현·나은경, 2015; 김태원·정정주, 2016; 정용택, 2016; 이현정,



2017).

이상의 선행연구 중 여러 문헌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반응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이를 크게 사회구조, 담론, 이념의 영향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사회구조적 설명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치열한 경쟁 체제, 낮은 연대 수준 등 구조적 특성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관심이나 혐오 반응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본다(장덕진 외, 2015; 조병화·이재열·구혜란 외, 2018).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구조 변동이 한국사회의 생존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지만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는 측면이 강조된다. 한편 공공 담론과 미디어 프레임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목하는 연구가 있다(김영욱·함승경, 2015; 이선민·이상길, 2015; 이완수·배재영, 2015; 홍주현·나은경, 2015; 김태원·정정주, 2016; 김영욱·함승경·김영지, 2017; 황희정, 2018). 또한 한국 시민들이 이념적,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 사건의 정치쟁점화나 진상규명 요구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김정한, 2014; 윤성이, 2015; 박종희, 2016; 2017; 강원택, 2017).

이상의 설명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한국사회의 상반된 반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구조적 배경이나 인과적 요인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여기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질문은,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지한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반대하거나 적대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 관심과 동기를 갖고서, 어떤 저변의 가치체계와 인식구조 위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에 대해 그토록 상반된 태도와 행동을 보였는가라는 문제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 밖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 조건, 요인, 변수를 규명하는 것보다는, 행위자들 자신의 사고와 감정,

생애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조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 2. 이론적 기초: 도덕감정, 가치체계, 정체성

세월호 참사와 같은 거대한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혐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 연구가 특별한 강조점을 두는 것은 그러한 도덕적 입장 표명의 내적 동기와 저변의 감정구조, 가치체계다. 도덕적 행위에서 직관과 논리, 감정과 이성은 물론 이분법적으로 대립되지 않지만, 두 측면은 사회화적으로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행위자가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에 명백히 관련될 경우, 그 행위자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일어나며 강한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 젠더 평등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차별이나 성적 폭력을 겪는다면, 상대방의 행위가 이러저러한 근거에서 차별과 폭력에 해당한다는 명제를 구성하기 이전에 먼저 즉각적으로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어떤 대상이 개인의 가치체계에서 애매한 의미를 갖거나 정체성의 핵심 가치에 복잡하게 관련될 경우, 그 대상에 대한 판단과 반응은 유예될 가능성이 많다.

말하자면 어떤 상황 자체가 모든 행위자들에게 동일한 도덕적 반응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주체의 '관계'에 따라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도덕적 관여 혹은 거부는 대체로 강한 감정적 속성을 띠며, 행위자의 가치와 정체성, 생애체험의 중핵과 직결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격렬한 도덕적 반응은 단지 어떤 추상적 규범과 교리를 내면화하고 사회화한 결과가 아니라 선/악, 정의/불의, 진실/거짓과 같은 질적 대비의 범주쌍으로 구성되는 '강한 가치평가(strong evaluation)'에 의해 추동

되는 것이다(Frankfurt, 1971; Taylor, 1985).

이런 경우에 그 상황에 대한 개인들의 도덕적 판단은 인지적 사고에 그치지 않고, 그의 실제적 행위에 방향을 부여하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테일러, 2015; Hitlin, 2003). 이와 같은 도덕감과 가치지향성은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위과정의 유기적 일부로서 인간 행위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힘의 동력 또는 동기(motivation)가 어떤 정체성과 생애체험의 기반에서 유래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Ignatow, 2008: 109; Vaisey, 2009).

그러므로 도덕적 반응이 감정구조, 가치체계, 생애체험과 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의 감정적 활동이 인지적, 도덕적 차원과 대립되는 것이 아님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이론화가 풍부히 이루어졌다(Denzin, 1983; Neu, 1987; Rosenberg, 1990; Calhoun, 2001). 감정은 서로 분리된 개인 내면 안에 갇혀있는 심리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제도 속에서 형성되고 규제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Kemper, 1991; von Scheve and von Luede, 2005).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감정과 감정적 유대는 거시적 사회변동을 추동하고 유발하는 강력한 미시적 동력이 되어 왔다(Stearns and Stearns, 1989; Barbalet, 1998; Summers-Effler, 2002). 사회운동 연구에서도 분노와 불의의 감정, 변화에의 열정, 집단적 유대감과 같은 감정들이 객관적 조건이나 조직적 전략 못지않게 운동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Goodwin, Jasper, and Polletta, 2001; Goodwin and Jasper, 2004).

특히 특정한 대상을 갖지 않는 감정의 상태를 뜻하는 무드(mood)와 달리, 어떤 상황, 사건, 행동 등 특정한 대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은 그 대상이 행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 행위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누스바움, 2015a; 레디, 2016; Layder, 2004; Tedhouten, 2007; Maiese, 2011; van Zomeren, 2016).

누스바움(Nussbaum)에 따르면 이러한 감정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작용한다. 첫째,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둘째, 자신의 목표와 외적 대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셋째, 자신의 중요한 목표와의 관련 속에서 외적 대상에 대해 어떤 가치평가가 내려지는가?(누스바움, 2015a: 30) 말하자면 나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가치의 위계 속에서 대상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내가 나에게 중요한 것들에 비추어 그 대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가 그 대상에 대한 감정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가치’는 규범, 선호, 또는 필요와 달리 인간행위에 강력한 내적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있다. “가치 지향적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고 의지하는 것을 향해 힘쓰는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 행위와 구분된다. 또한 가치는 행위의 목적 자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목적을 위해 주어진 선택지 중 더 나은 것을 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선호와 다르다”(신진욱, 2018: 19). 즉 행위자에게 무엇인가가 가치 있다면 행위자는 그 가치의 구현을 최우선의 행위목표로 삼게 되며,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적 행위를 하게 된다. 그것은 외적 규범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과 다르며, 나의 필요와 욕구를 가장 만족스럽게 충족시키는 대상을 찾아 비교하고 선택하는 자기중심적 행위와도 구분된다. 무엇인가가 가치 있다는 것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도, 행위자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행위자는 그것에 이끌리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갖게 된다(Joas, 2000).

이 논문이 주목하는 공감(empathy)의 감정은 주체-대상 간의 그와 같은 가치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공감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지만, 거기에 타인의 내면 상태를 상상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폭넓은 합의가 존재한다(Hoffman, 2000; Coplan, 2011; Impey, 2012; Garrett and Graham, 2014). 여기서 타인의 상황을 상상한다

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 감정이입이 아니라, 일찍이 미드(George Herbert Mead)가 인간 자아의 사회성의 원천이자 자아형성의 근원적 조건으로 설명했던 '타인의 역할을 취할(role-taking)'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다. 즉 타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겪고 있으며, 타인의 마음과 행동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예견(anticipation)을 바로 자기 자신 내부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Mead, [1934]1967). 그러한 상상적 재현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타인의 경험, 생각, 감정, 의도 등으로 상상한 것을 우리 안에서 인식하고 느끼게 된다.

이처럼 공감이라는 감정이 생겨날 가능성은 공감하는 주체, 또는 공감의 대상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상상을 매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구체적 타인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따라 우리가 그 타인에 동일시하는 상상으로부터 생겨나는 감정의 강도와 내용, 또 그에 상응하는 행동 반응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 혹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떤 객관적인 관계나 처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흔히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타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이란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등의 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가장 깊게 경험하게 되는 감정이긴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관계에서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누스바움, 2015b; Hoffman, 2000).

이처럼 연대 행동의 중요한 기초인 공감의 감정이 특정한 사건, 상황, 타인을 의미 있고 중대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공감의 형성 또는 부재는 그 구체적 사건, 상황, 타인의 의미를 위치 짓는 가치체계의 토대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가치의 특정한 위계와 의미구조 안에서 타인의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가 생성되고, 바로 거기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시작되는 것이다. 타인이 무엇인가를 결핍하거나 박

탈당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중대한 것을 의미할 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곳을 향하며, 거기에 관여하고, 그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것처럼 특별하고 강력한 가치부여와 의미부여에 의해 행위자는 비로소 “도덕적으로 충분한 공감(morally sufficient empathy)”, 즉 고통 받는 어느 타인의 상태를 상상하고 느끼려는 심리적 공감에서 더 나아가, 그 고통을 극복해가는 과정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Garrett and Graham, 2014).

그와 반대로 나의 정체성과 가치체계 안에서 중심적 위상을 갖지 않는 어떤 사건 혹은 타인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과 연대를 사회적으로 요구받게 되면 그에 대한 반발감이 생겨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고통스런 상황을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의 기억이 정체성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엔, 만인이 만인과 그와 같은 외면과 무관심의 관계를 맺는 부정적 호혜성(Gouldner, 1960: 172)을 지향하게 되어 누군가가 사회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기 쉽다.

이상의 이론적 검토를 거쳐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공감과 혐오라는 상반된 반응을 탐구하기 위해 물어야 할 이론적 차원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었다. 첫째는 관심과 동기다. 각 행위자들이 진실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둘째는 가치체계와 세계관이다.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과 행위 동기는 어떤 가치체계와 세계관의 틀 안에서 생겨났는가? 그들에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타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가? 셋째는 타인과 공동체의 의미에 관한 생애사의 서사다. 그 서사는 어떤 체험의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지금 이곳'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도덕적 태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정당화하는가?

### Ⅲ. 연구 목표와 방법

#### 1. 연구 목표와 방법의 개요

이 연구의 경험적 조사 목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해석과 유가족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상이한 반응을 보인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두 집단의 행위 동기, 감정구조, 가치지향을 비교·대조함으로써 양자의 구조적 차이와 공통분모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사는 양면적인데, 한편으로 두 대조 집단의 관심과 행위동기, 가치관과 세계관의 전형성을 이념형적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양자를 가로지르는 비전형적 복잡성을 포착하는 일이 그것이다.

질적 연구의 심층면접은 대면 상황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화의 일종이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대화라는 점에서 일상적 대화와 다르다(메이슨, 2010; Hesse-Biber and Leavy, 2011). 질적 면접 연구에서는 연구의 경험적 소재가 되는 면접참여자의 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연구 결과의 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가령 연구자가 알고 싶은 것에 대해 지식이 많지 않거나 충분히 밀도 있는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면접참여자로 선정하면 연구자는 해석 작업을 위한 풍부한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질적 면접 연구에서는 목표에 조응하는 면접참여자를 선정 기준을 확립하는 일과 그 기준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면접참여자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면접참여자의 선정 기준과 발굴 과정은 단순히 실용적 용이성만을 좇아서는 안 되며 양적·질적 연구의 각기 다른 원리에 대한 이해에 근거해야 한다. 큰 표본을 이용하여 확률의 세계(stochastic world)를 들여다보는 통계적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의 무작위성을 최대화하여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면, 한정된 수의 표본으로 의미의 세계(world of meanings)를 해석하는 질적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갖는 연구대상을 찾아 연구 목표에 대한 적합성(relevance)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이상적인 방식은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혹은 목적의식적 선택(purposeful selection)의 방법이다(막스웰, 2009: 109).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의 목적의식적 선택의 원리에 기초하되, 잠재적 면접참여자를 포함하는 연구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적 분석을 병행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전형성 확보와 타당성 검증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중심으로 면접참여자를 선정했다(막스웰, 2009: 110). 우선 세월호 사건에 대해 공감과 혐오라는 상반된 반응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면접참여자로 선정하고자 했다. 여기서 전형성(typicality)은 질적 연구의 표집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통계 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 모집단의 속성을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관련된다면, 질적 연구에서 표본의 전형성은 해당 연구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어떤 특수한 양태를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Barbour, 2013: 24). 보완적으로 이 연구는 또한 분석의 타당성을 시험할 수 있는 면접참여자 집단을 확보하고자 했다.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면접참여자들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가늠하고 정교히 하기 위한 고안으로, 공감과 혐오라는 두 전형성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려는 의식적 태도를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을 면접참여자로 포함시켰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면접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진보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오늘의 유머」(이하 「오유」)와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오유」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이틀이 지난 2014년 4월 18일부터 세월호 게시판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고, 「오유」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의 대부분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긍정적이다. 반면 「일베」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허위정보와 세월호 희생자를 조롱하는 내용을 담은 게시글이 올라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된 게시글의 대부분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부정적이다. 그러므로 「오유」와 「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게시글의 내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파악했을 때, 우리는 그 특징을 특별히 강하게 지닌 면접참여자를 선정하여 도출한 결론이 상당한 정도의 일반성을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 2. 「오유」와 「일베」의 세월호 게시글의 빈도와 담론

「오유」와 「일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단계는 통계적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두 온라인 커뮤니티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의 빈도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두 번째 단계는 질적 내용 분석으로, 통계 분석 결과에서 게시글이 집중되는 시점에 추천수가 가장 높은 게시글들에 대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수행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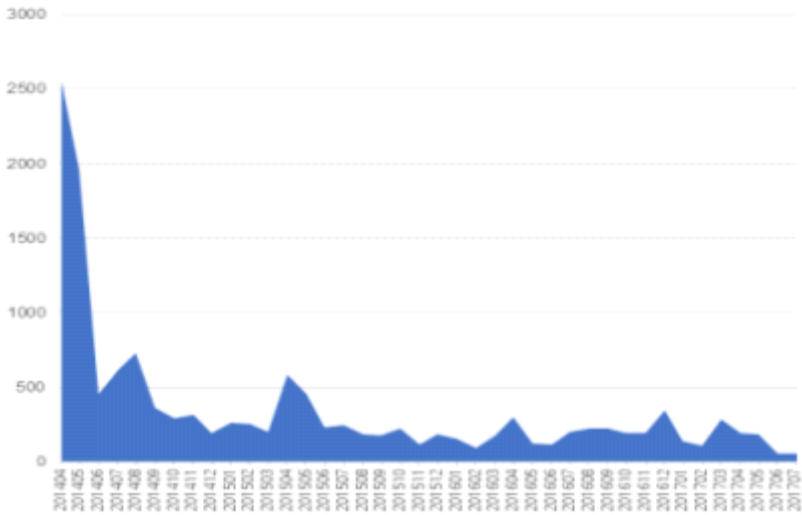
첫째, 「오유」와 「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의 숫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오유」의 경우, 2014년 4월 18일부터 2017년 7월까지 「오유」의 '세월호 게시판 베스트'에 올라온 모

든 게시글을 분석하였다. 「일베」의 경우,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 7월까지 「일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모두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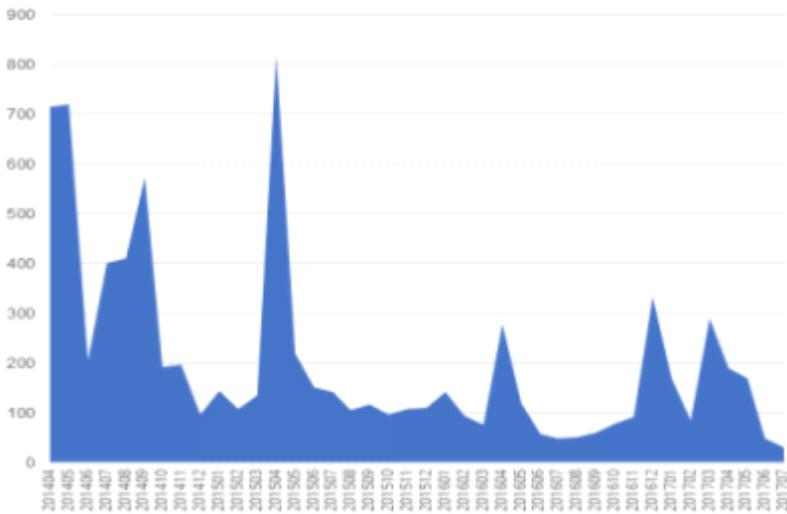
여기서 「오유」의 분석대상은 세월호 게시판의 '베스트' 게시글인데 비해, 「일베」는 전체 사이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일베」에서는 제목과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검색하는 기능이 있는 데 반해, 「오유」에서는 제목 또는 글쓴이 중 하나만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베」와 같은 조건으로 「오유」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글 중 제목에 세월호가 들어간 글을 검색하면 검색되는 게시글의 숫자가 너무 적다. 반대로 「오유」 전체 글을 대상으로 제목을 검색하면 너무 많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의미 있을 만한 규모가 되면서, 동시에 질적 내용분석에서도 다룰 수 있을 만한 적정 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월호 게시판 베스트'를 대상으로 결정했다.

아래의 <Figure 1>과 <Figure 2>는 각각 「오유」의 '세월호 게시판 베스트'와 「일베」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서 2014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게시된 세월호 관련 글의 빈도 추이다. 두 커뮤니티의 분석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빈도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각 커뮤니티의 시간적 추이를 비교하는 것만이 의미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오유」와 「일베」의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인다. 2014년 사건 발생 직후에 빈도가 대단히 높았다가 이후 그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 적은 없다는 점, 매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4월에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2014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시기, 2016년 12월에 탄핵 촛불시위가 고조된 시기, 대통령 선거를 치른 2017년 5월 등과 같이 정치적 긴장이 높아진 시기에 게시글 빈도가 올라갔다는 점 등이다.

The 'Yellow Ribbon' for the Victims of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Binge Eating Struggle' by the Ilbe-Users:  
The Typicality of Empathy and Hate and Its Untypical Life-World



<Figure 1> Trends in the Frequency of Tex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Online Community 'Today Humor'



<Figure 2> Trends in the Frequency of Tex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Online Community 'Daily Best (Ilbe)'

둘째, 「오유」와 「일베」에 올라온 세월호 관련 게시글에서 나타나는 담론을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유형별로 분류했다. 매년 4월과 5월의 게시글 가운데 게시글의 추천수가 각 달 게시글의 추천수 분포에서 상위 10% 이상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세월호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는 4월과 5월의 게시글 가운데에서도 추천수가 높은 게시글은 다양한 「오유」와 「일베」 유저가 동의하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반응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유형화의 과정은 질적 내용분석 기법 중 요약(summarizing)과 구조화(structurizing)의 절차를 통해 주제상의 범주를 형성하고 보다 상위의 범주로 추상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Mayring, 2000; 2015). 먼저 매년 게시글의 내용을 주장, 이유, 근거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매년 「오유」와 「일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분류할 수 있는 범주들을 구성했고 이를 보다 상위의 범주들로 묶어갔다. 범주들을 구성할 때는 세 원칙을 따랐다. 중요성의 원칙, 명시성의 원칙, 그리고 내재적 관점의 원칙이다. 중요성의 원칙이란 게시글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게시글에 등장하는 범주들을 파악한다는 것이다. 명시성의 원칙이란 게시글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을 파악할 때 게시글의 명시적 표현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내재적 관점의 원칙이란 게시글에 등장한 타인들의 관점을 제외하고 게시자 자신의 관점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게시글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내용이 두 개 이상일 경우, 다시 말해 두 개 이상의 범주들이 나타날 경우, 이 범주들을 모두 해당 글에서 등장하는 범주로 파악했다.

「오유」와 「일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질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주제 범주가 <Table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오유」와 「일베」 유저들이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가진 주요 이유가 세월호 사건이 지닌 정치적 의미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공감 여부에 관

런되지만, 두 측면의 우선순위와 연결구조는 두 면접참여자 집단에서 반대된다는 것이다. 「오유」의 경우 세월호 사건 자체와 유가족에 대한 공감적 관여가 정치 비판보다 더 지속적인 데 반해, 「일베」에서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비난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유가족에 공감하느냐 비공감하느냐 여부는 보다 부차적이었다.

「오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는 시점은 2015년 7월, 10월, 2016년 3월, 7월인데, 이 시기에 「오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방송, 다큐멘터리, 세월호 특조위 활동과 같이 세월호 사건 및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들을 계기로 하여 쓴 것이 대부분이다. 「오유」의 유저들이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가진 주요 이유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었다. 「오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에서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2014년도에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 이후부터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감이 일관되게 더 많이 나타난다.

<Table 1> Frequency of Topics in Tex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Today Humor'

	2014	2015	2016	2017
Criticism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330	62	13	6
Sympathy for the family of the Sewol victims	247	86	27	33

그와 반대로 「일베」 유저는 세월호 사건이 정치 이슈와 관련될 때 세월호 사건에 가장 많이 관심을 보였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일베의 세월호 관련 게시글이 급증하는 시기다. <Table 2>을 보면, 「일베」에서 이전 달과 비교했을 때 세월호 관련 게시글이 가장 많이 증가한 때는 2015년 4월로,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경찰이

충돌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때이다. 그리고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던 2016년 4월,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다시 불거졌던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세월호 인양이 신속하게 진행되자 인양이 지연된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의지 결여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2017년 3월이 차례대로 그 뒤를 잇는다. 즉 「일베」 유저는 세월호 사건이 '우파' 진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할 때 세월호 사건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Frequency of Topics in Tex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in the 'Ilbe'

	2014	2015	2016	2017
Blame for the critics of the Park government	95	77	25	36
Blame for the family of the Sewol victims	13	33	13	7

이상과 같은 차이는 일단 이 빈도 분석에서는 단순한 양적 차이에 불과하나, 그것이 행위 동기와 목표의 면에서 훨씬 더 의미심장한 실질적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뒤에서 상세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 3. 면접참여자 선정과 면접 진행

심층면접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세월호 관련 게시글에서 가장 빈번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담론유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출했다. 즉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공감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하였다. 면접참여자를 물색하고 연구 참여를 제안하는 과정은 페이스북, 「일베」 등 온라인 공간과 세월호 운동단체 또는 연결망 등 오프라인 통로를 함께 활용했다.

먼저 정치적 입장이 강한 사람을 찾기 위해 세월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나 진보 또는 우익 성향이 뚜렷한 단체의 페이스북 페이지의 댓글을 조사하여, 정치적 입장 표명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연구 참여를 제안하여 모집했다. 다음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 여부를 기준으로 면접참여자를 선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강하게 공감하는 면접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집했다. 제안을 승낙한 사람들 가운데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면접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가 강한 면접참여자는 「일베」 유저나 페이스북에서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강하게 적대적인 글로 관심을 끈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일베」 유저에 대한 연구 참여 제안은 「일베」 정치게시판과 자유게시판에 올린 게시글을 이용하거나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구 참여를 제안하였다.

면접참여자는 세 유형으로 구분해서 모집했다(〈Table 3〉). A그룹은 세월호 참사의 기억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운동 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고 있는 경우다. B그룹은 그러한 활동에 반대하고 혐오 표현을 공공에 표현하는 활동을 벌여온 사람들이다. 모두 「일베」 사용자거나, 우파 단체 활동의 경험이 있거나 현재 활동 중이다. C그룹은 앞의 두 그룹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방해온 사람들 가운데서 모집했다. 면접은 2017년 7월 17에서 2018년 1월 31일까지 반(半)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진행했고,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면접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Table 3> Information about the Participants of the In-depth Interviews

Serial number, nickname, and age	Sex	Political inclination (self-description)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s	Number of interviews
A1 Minjeong(48)	f	progressive	participants of the activities for the victims and relativ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2
A2 Yujin(39)	f	respect of human dignity		3
A3 Mina(37)	f	progressive		3
A4 Seheui(44)	f	center-right		2
A5 Suok(32)	f	progressive		2
A6 Yuseon(20)	f			1
A7 Miseon(45)	f			2
B1 Taeyeong(20)	m	unclear	activities criticizing the campaigns for Sewol victims	2
B2 Sunbong(38)	m	right	user of the Ilbe community	2
B3 Heungmin(34)	m	liberal right	former activist of a youth right-wing organization	2
B4 Jincheol(21)	m	right	user of the Ilbe community	3
B5 Yeseul(59)	f	conservative	supporter of President Park	2
B6 Noeul(31)	f	conservative	former activist of a youth right-wing organization	2
C1 Seungheui(28)	f			1
C2 Hyeonwoo(29)	m		indifferent to Sewol issue, but critical about Park government	3
C3 Deokbae(27)	m	neutral	sympathy for the victims, but no support of their actions	1
C4 Gijeong(25)	m	more or less conservative	right-wing, but critical about the Park government	2
C5 Wonjae(32)	m	politically neutral	disagree on politicization, but agree on finding the truth	1
C6 Cheolsu(62)	m	more value on life than profit	left-wing, but opposed to politicization of Sewol issue	1



Serial number, nickname, and age	Sex	Political inclination (self-description)	Social and Political Engagements	Number of interviews
C7 Giseok(28)	m		left-wing, but opposed to politicization of Sewol issue	2

## IV.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 참여자의 사례

### 1. 관심에서 참여로, 정치의식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는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면접참여자들에게서 두드러진 특징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 정치활동이나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연장선상에서 세월호 활동에 참여한 것이 아닐뿐더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관여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은 나중에 큰 사회정치적 쟁점들에 깊이 참여하게 됐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의도된 것도, 예견된 것도 아니었다.

거기로 이른 긴 과정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그 시작은 관심이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구조작업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찾아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다. 둘째, 이들은 세월호 사건 희생자, 생존자, 유가족들의 경험과 상태에 깊이 이입되어 개인의 일상생활에까지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받았다. 셋째, 세월호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공감과 책임 의식이 일시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당사자들의 이후 진상규명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먼저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면접참여자들은 세월호 사고 직후에 구조작업과 관련된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했던 경향이 있다. 이들이 구조작업과 관련된 정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탑승객 가족에 대

한 공감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안타까움을 크게 느꼈던 이유로 희생자들 가운데 어린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과 더불어 비극적인 사고로 가족을 잃고 상심에 빠져있을 유가족들의 심정을 주로 언급했다.

그니깐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 졌냐면요.. 삼백 사명이 죽은 사고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가족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있는 그것들이 삼백 네 장면이 이렇게 타타타탁 그렇게 떠올렸다고 해야 하나?(A6, 유선)

나아가 이들은 세월호 사건 관련 정보를 접하면서 분노, 무기력감, 슬픔, 우울, 미안함, 불편함과 같은 감정을 느꼈고, 일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감정이 강했다고 말한다.

사건을 보면서 매일 가슴 치고 울면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 막 굉장히 너무 아팠어요. 울면서 울면서 [...]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정말 우울증 날 거 같다 우울증을 거 같다 제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 (연구자: 어떻게 아프셨는데요?) 몸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이게 뭐랄까... 그 분노 같은 거라든지 이게 억울함.. 내 일도 아닌데 그 억울함 분노 분통 이런 게 막 쌓이는 거 같은 거예요. 울화가 치민다고 그러나 [...] 우리 딸이 딸도 같이 옆에서 울다가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제가 그때 광장에 안 나갔으면 정말로 우울증 왔었을 거예요 저는(A1, 민정).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면접참여자들 대부분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난 시점부터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이 단지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시간과 헌신을 들여야 하는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그들의 관심과 공감이 그만큼 강렬하고 지속적이었다는 데 기인한 것 같다. “알게 된 이상 모른 척 할

수가 없었”(A6, 유선)고, 유가족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피해갈 수는 없”(A7, 미선)는 힘으로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었다고 이들은 당시의 감정을 표현했다.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 집에 보내고 마음껏 웃고 안아주고 나서 집에 왔을 때 그분들이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이려고 있는데 아이가 없는 그분들의 마음 그 사이에서 많은 힘든 감정을 경험했었던 거 같아요 [...]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보다는 그냥 계속 불편했어요. 많이 힘들고 불편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폐북에 어떤 분이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더 열악한 처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봤을 때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A3, 민아).

민정(A1) 역시 세월호 사고 직후에 일인시위를 했던 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뭔가 나도 해야겠다”는 생각은 이전부터 있었지만, 이 엄마의 모습을 본 후에 “나도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소박하지만 강력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세월호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바로 그 참여의 경험을 통해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의식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한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특조위가 어떻게 해체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제대로 조사 된, 조사할 수도 없었고 조사... 없었어요. 그니깐 만약에 모르겠어요. 수사권을 줄 수 없었다라면... 이것이 그니깐 이걸 수사권을 달라고 얘기했던 게 칼을 달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는 마음 때문에 얘기를 했을까요? [...] 그 상황 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초반부터 뭔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숨기지 않고 뭔가 이상한 것에 대해서 해명해 줄려는 정말 시도라도 의

도라도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신뢰를 정말 10프로라도 가졌더라면 이렇게 까지 밀고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최후의 보루였거든요(A4, 세희).

세월호 사건 관련 활동에 참여해 온 면접참여자들은 정부의 무능한 구조작업이 세월호 사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한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의 구조작업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들은 구조작업을 수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진상규명 태도에 대해서는 심지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참사 이후 “매일 눈물이 나”던 개인적 공감에서 시작한 이들은 참여 과정에서 정부와 대립하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의 한 가운데까지 들어왔다.

## 2. 공동체의 기억, 발견, 확장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 및 유가족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그 참여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헌신을 요구하며, 따라서 재난 당사자들과의 연대에 대해 그만큼 강한 가치를 부여할 때만 지속될 수 있다. 이들은 자신의 참여 행위가 가치 있는 일임을 어떤 논리 또는 서사로서 설명할까?

활동에 참여한 여러 면접참여자들에게 “같이 잘 사는 것”(A3, 민아)은 그래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가치였다. ‘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민아(A3)는 이렇게 대답했다.

음 글썽요 [...] 그 뭔가 논리적 근거를 댐야 하는 건가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인권도 그렇고 어떤 경제적인 빈부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존중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 그것들을 박탈당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 누구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 인간은 똑같이다 존중을 받고 존엄해져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하에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는 그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일단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A3, 민아).

이들은 그러한 가치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서 그런 존중과 지지를 받았던 경험들을 언급했다. 내 잘못이라는 자책 때문에 스스로도 알아주지 못했던 괴로움이 사실은 “충분히 아파할만한 거였”(A2, 유진)다는 걸 인정받는 느낌, 그래서 “내가 고립되어 있지 않구나”(A2, 유진)와 같은 안전감, “내 마음을 탁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느낌”(A4, 세희),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나”(A3, 민아)로 거듭나는 경험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이 단지 타인과 공동체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받는 환경에서 살아온 덕분에 다른 타인들에 대한 공감이 가능해진 것은 아니었다. A그룹의 여러 면접참여자는 ‘이미 준비된’ 가치관을 세월호 활동에서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거나 예기치 않은 새로운 현실과 조우하는 바로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요아스(Joas, 2000)는 기존의 세계관과 정체성을 뒤흔드는 생애경험을 통해 행위자들이 마치 종교적 개종처럼 그들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게 만드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고 했는데, 이 연구의 여러 면접참여자는 세월호 활동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그 같은 인식의 전환, 정체성과 세계상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음을 말해줬다.

고립되고 고된 노동에 종사해 온 32세의 여성인 수옥(A5)이 그런 경우다. 그녀는 극도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곤궁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생애사적 배경 위에서, 세월호 활동에 참여하는 가운데 비로소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것의 가치를 발견했다.

제가 하는 일은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맨날 밤새고 그리고 뭐 집에도 어쩔 때는 못 들어가고 되게 노, 노동이 심해, 육체노동이 심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실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그냥 내 한탄만 하는 거예요. [...] 그니까 그거를 외면을 계속하는 방법을 찾았던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많지 않잖아요. 이제 뭐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TV를 재밌는 거 그냥 찾아서 본다거나(A5, 수옥).

수옥은 것처럼 고립된 노동의 삶 가운데 자신을 주장하거나 타인과 공동체를 이루는 경험을 해보지 못하다가, 세월호 집회에 참여하고 유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하면서 “누구나 존중 받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을 목격한다.

제 어린 시절이나 사회생활을 해, 그때까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감히 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 계속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광장에서는 누구나 존중 받는,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는 누구나 존중 받는 사람이라는 걸 아무렇지 않게 알려줬어요. 모든 사람들이(A5, 수옥).

수옥은 자신이 세월호 활동을 계기로 해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경험에서 자신 안에 생겨난 가치를 ‘연대’라고 분명히 명명하기까지 했다.

저는 분명히 세월호 참사라는 그 매개가 있었던 건데... 그(세월호 참사) 게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해서 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또 많이 느꼈던 거 같아요. [...] 연대가 뭔지... 같이 하는 게 뭔지 같이 사는 게 뭔지... (A5, 수옥).

20세 여성인 유선(A6) 역시 흥미로운 사례다. 그녀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전교 1등”의 자신과 의식적으로 결별했다.

저는 제가 평화로우면 다 평화로운 건 줄 알았는데 [...] 아 그렇게만 생각을, 아 좁은 시야로만 생각을 한 거죠. 나랑 내 주변 사람들만 행복하면은 행복한 삶이다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걸 너무 많이 만난 거예요. 세월호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농성하면서 계속 만난 투쟁하고 있는 농성하는 사람들 [...] 뭐 행진해서 오는 연대자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이런 세상이구나 [...]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되게 많이 바뀌었죠. 그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던 애였는데 [...] 자존감이 엄청 높아가지고 전교 1등이니깐 [...] 담임 선생님이 막 너는 광화문 나가면서 왜 학교는 안 오냐 학생의 본분에 충실해야지 아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열 받는 거예요. 아니 학생의 본분이고 뭐고 지금 인간의 도리를 난 하고 싶은데 [...] 담임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싸우고 학교 가기 싫어서 맨날 막 아프다 그러고. 안 가고 막 이랬었어요.(A6, 유선).

이들 A그룹의 면접참여자들은 연대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공통으로 관심을 갖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A3, 민아) 것, 이 문제로 “마음 아프고 정 말 시련 당하고 있는 사람들”(C6, 철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대의 경험을 통해 면접참여자들은 “나 혼자 아니구나”(C6, 철수)라는 위안, “누군가하고 내가 연결 되어 있”다는, 나아가 “좋은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A3, 민아)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경험은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까지 이어졌다.

한국사회에서의 보수는 나와 나의 가족은 존중할진 모르겠지만 혹은 나와

나의 나라는 존중할진 모르겠지만 이웃, 이웃을 포함한 우리를 존중하거나 혹은 음.. 이웃과 함께 사는 나라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느낌이 저는 더 강한 거 같아요. [...] 내 것은 하나도 건드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세상은 변하면 안 되고 내 것이 변화할까봐 불편하고 불안하고(A2, 유진).

그처럼 좁은 가족적 한계 너머의 더 넓은 공동체를, 이들은 세월호 활동 중에 마주친 사회구조적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게 되면서 발견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억울함을 당한 분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어떤 쌓여진 구조 안에서 커다란 권력과 자기가 어찌지 하지 못,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고공농성을 하시는 거 잦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세상인 거 같아요. [...] 그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 답답함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고 사회구조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고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어떤 감정들인 거 같아요. [...] 당연히 그래야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당함이 저를 화나게 하는 것 같아요(A3, 민아).

그와 같은 인식과 관심의 확장, 연대감의 확대는 때로는 더욱 의식적이고 언어적으로 명료화된 가치 일반화(value generalization)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그러한 타자를 향한 가치 재구성의 과정은 자기정체성의 재구성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Joas, 2011: 256-260).

그때는 좀 그 범위가 되게 좁았던 거 같아요. 그냥 제가 주변 사람한테 잘 하고 그 중에 힘든 사람 있으면 같이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딱 저는 제 선은 거기까지였거든요. [그런데] 세월호를 통해서 어쨌거나 피켓을 서게 됐잖아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저하고 같이 피켓을 섰던 언니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했었고 언니들의 얘기를 듣고



서울에서 한 번씩 피케팅을 했을 때 같이 어떤 행진을 하면서 고공농성하는 사람들을 봤고. 왜 저 사람들은 저기 서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고 아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 그러면서 뭐 고공농성 하는 분들 보면서 쌍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됐고.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전태일 평전을 읽으면서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일들하고. 아 이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너무나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관련된 또 책을 읽게 됐고 [...] 그게 이제 또 주변부로 또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소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결국에는 여성으로서... 그게 이렇게 거쳐 거쳐서 흘러온 거 같아요. 세월호에서 어떤 고공농성하시는 분들 유가족들 그래서 뭐 동성애하시는 분들 성소수자들이나 저까지 이렇게 인식이 좀 흐르게 된 거 같아요.(A3, 민아).

## V. 「일베」 사용자와 우파 단체 활동가의 사례

### 1. 정치적 동기의 유가족 혐오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한 A그룹의 면접참여자들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여 더 넓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여로 확장된 데 반해, 그러한 공감적 활동에 강한 반감을 표출한 B그룹의 면접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애초에 세월호 사건에 관심이 없었으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고 정치쟁점화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는 이들의 혐오 행위의 주된 동기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 타인들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다는 확신이 깔려 있었다.

처음엔 다 구조를 했다길래 아 진짜 큰일날 뻔 했다 아 잘 됐다 했는데 그 답에 갑자기 사망자가 조금씩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뭐냐 어우 황당해하고 있었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졌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나중에 이슈화 되고 나서 나중에 돌이켜서 보고. 그 막 시위가 심해지고 처음에는 신경 안 썼는데 (시위가) 과격화되고 심해지다 보니깐 그때부터 이제 어 이거 냄새 좀 나는데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연구를 [...] (연구자: 그 냄새는 뭐죠?) 뭔가 의도적인 색깔이 들어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 자신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를 해석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받은 거죠. 정권교체의 희망으로(B3, 흥민).

이들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가 사고 현장의 불가항력적인 조건 때문이라고 보았고, 설령 해경의 구조작업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들은 정부의 구조작업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이나 진상 규명 요구 역시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비난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애도가 장기화되는 이유도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좌파' 진영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기한으로 추모를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자꾸 조성"(B2, 순봉)한다고 믿고 있다.

이들이 세월호 유가족에게까지 반감을 느끼는 주된 원인도 세월호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죽은 사람의 그 가치"를 이용하는 "시체팔이"(B2, 순봉)라고 비난하면서 "노란색만 봐도 토"(B5, 예슬)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할 만큼 강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더구나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른 사고의 유가족들보다 "특별 대우"(B6, 노을)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이토록 강한 거부와 혐오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작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 희생자 유가족들의

비판과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유가족과 대책위 등이 정부와 갈등하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 구조작업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지점으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그냥 [...] 근데 제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는데 뭐 세월호를 뭐 인양을 하라 마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고.. 근데 저는 사실 구조작업이라든지 뭐 정부의 늦장대처 사실 저는 이런 거에서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 저는 크게 보고 있는 게 사람들 문제 유가족들이나 정치인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조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 같아요(B1, 태영).

(연구자: 세월호 유가족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이 뭔지를 한 번 살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저 묻고 싶어요 궁금해요. [...] (연구자: 궁금하신데 왜 살펴보시진 않으셨던 거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이게 3년이나 끌었고.. 3년, 4년 끌었고.. 더 이상 쫓겨 뭐가 있나라는, 오죽하면 지겹다고 했잖아요? 예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막 다시 이게 뭔가 왜 그런 거까지는 정말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B5, 예슬).

태영(B1)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었는데 무조건 돈 요구만 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몇몇 영상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모호한 기억을 근거로 얘기했다. 노을(B6)은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들은 세월호에 관련된 갈등에 깊이 관여해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에서 쟁점이 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있었거나 알려는 의지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세월호 사건에 대한 무관심과 비공감에서 출발하여 격렬한 정

치적 반감으로, 나아가 유가족에 대한 혐오로 나아가는 것이 B그룹의 여러 면접참여자의 전형적인 경로였다면, 그와 달리 특별히 강한 혐오감을 갖고 있지 않았거나 심지어 애초엔 평범한 인간적 공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강한 반감과 적대적 태도로 변하게 된 여러 사례가 있었다. 진철(B4)이 그런 경우인데, 이 사례는 단지 관심과 공감의 존재 여부 못지않게 그 깊이와 지속성 역시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도덕적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철은 「일베」 활동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우파'라고 정의한 21세 남성이다. 그는 '정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개인', '존엄', '평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 언어로 설명할 정도로 정련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다.

제가 믿는 정의는 개인의 몫을 추구하되 온전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의 몫을 침범하지 않는 거. 그게 제가 믿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불평등은 뭐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존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도 그거지만, 빈부의 격차가 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평등이라고 생각하거든요(B4, 진철).

주목할 점은 그가 세월호 사건 직후에 이 사건에 깊이 몰입했고 희생자들에 대한 강한 동일시와 공감을 갖고 있었지만, 점차 사회로부터 공감을 '강요'받는다고 느끼면서 반감을 갖고 부정적 태도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터지고 일주일 동안은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제 친구의 친구도 사고를 당했고 이제 같은 나이다 보니깐 안타깝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꿈도 필요 너무 이제 막 티비에서도 계속 말

하고 학교에서도 말하고 하다보니깐 이제 꿈에서 제가 구하는 꿈을 막 꾸고 그랬거든요. [...] [그런데] 좀 오래 이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깐.. 정치적으로도 이제 계속 푸시가 오고 이쪽에... 그리고 주위에서도 이제 계속 막 기억해라 어찌라 감정을 좀 강요하는 느낌이 많았구요. 그러다보니깐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귀찮고.. 그 사실 인간이라는 게 주위에서 그렇게 부고를 당해도 아 안타깝다 안타깝다 해도 결국에는 잊혀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깐 이제 계속 변한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감정이 그런데 주변에선 계속 막 기억해라 기억해라 막 이거 밝혀라 밝혀라 이러다 보니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반감이 생기는 거 같아요(B4, 진철).

이처럼 공감에서 피로감으로, 그리고 반감과 혐오로 나아가는 경로는 세월호 이슈에 대한 '중립적' 태도를 표방한 C그룹의 면접참여자들에게서도 발견됐다. 이중 여럿은 심지어 자신이 '진보적'이며 '좌파'를 지지한다고 하기도 했지만, 위에 서술한 우파 면접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인들이 "이권을 챙기"(C5, 원재)고 있다고 여기고 있거나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에 "염증, 신물"(C7, 기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중 다수에게서 두드러진 면은 이 사건을 둘러싼 갈등에 관여하지 않으려할 뿐 아니라, 정부에 의혹을 제기해서 분쟁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설마 진짜 그랬겠어? 이런 생각이 되게 기저에 많이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들, 뭐 뭐지? 다이버들을 못 들어가게 했단지 [...] 설마,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래 오해가 생긴 거겠지. 아니면 사람들이 왜곡된 시각으로 판단을 한 거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 같아요(C1, 승희).

하지만 이 유형의 면접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정보가 미약하거나 수동적으로만 접한 경향이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에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C5, 원재)고, 그래서 구조작업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다이빙벨이 뭔지도 모르겠”(C11, 유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관심과 자신의 의견이 약했기 때문에 상충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 “사실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었다(C1, 승희). 현우(C2)는 아직까지도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고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게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관심과 판단의 결핍으로 이들은 사실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갖고 있을 때조차도 그 근거를 대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기정(C4)은 유민 아빠가 유민의 장례식에도 “안 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곧 “정확한 정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고, 원재(C5)는 정부의 구조작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적어도 사람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눈 뜨고 방치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막연히 추측했다. 이처럼 정보와 판단이 모호한 상태에서 이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데까지 가기는 좀 귀찮았던 거 같아요. 그니까 막상 내 시간을 내서 찾아가기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서 엄마가 애를 목 졸라 죽였다고 하면 아 진짜 안타깝고 슬프다 하지만 찾아가진 않자나요?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 그냥 굳이 내가 찾아가기까지는 내 할 일이 바쁘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 같고(C5, 원재).

## 2. 개인책임의 가치관과 생애경험의 서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혐오 감정과 애도에 대한 거부감을 표한 면접 참여자들이 특징적으로 드러낸 근거의 태도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특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비극과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 중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대해줘야 할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이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지라는 관념에 반대했다.

저 사람들은 왜 굳이 저렇게까지 계속해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거지. 왜 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저러고 있는 거지? [...] 세상에 자식을 잃은 부모가 많잖아? 병으로 잃었든. 교통사고로 잃었든. 근데 살아가셨잖아 (C1, 승희).

동성애나 이런 거 케이스에 대해서는 성적소수자 쪽에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보는 거 자체도 오만이 아닌가 싶고. 그런 식이면 저도 사회적 약자에요 저도 욕 엄청 먹어요. 모르겠어요 욕을 많이 먹으면 약자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B3, 흥민).

누구의 고통도 특별하지 않다는 얼핏 평등주의적인 태도는 누구나 그러므로 혼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가치관과 맞닿아 있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개인적 삶에서 내 문제는 결국 "나 혼자 극복해야"(B5, 예슬) 하며 "결국에는 내 문제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B4, 진철) 해주었다고 하는 경험들을 부각시켰다.

우리 딸이 떠났을 때 그 빈 방이 막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결혼 안 한 동생이 있는데.. 막 그 동생이 거기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요. [...] 좀 있어 달라 그랬는데 게가 하루인가 있고는 가버, 불편하지 게도. 아무리 언니 집이지만 있는다라는 게.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갈 때 너무 서운했어요 정말. [...] 동생이, 언니 간 사람은 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동생이 딱 가버렸을 때 그때 그냥 아 [...] 내가 이거는 [...] 재도 제 2차야... 이거는 내가 극복하는 문제구나. 내가 재한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일어나고(B5, 예슬).

B그룹의 다른 많은 면접참여자들도 이처럼 자신이 고통 받을 때 공감과 도움을 구했으나 외면당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자신의 절박한 호소를 타인들이 “귀찮아”(B4, 진철)했던 경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을 털어놓았을 때 “온 동네 다 퍼”졌던(B5, 예슬) 경험, “자신의 약점들을 공개”한 것이 자신을 “조롱하고 놀리고 얹잡아 보”는 빌미가 되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순간 중에 하나”(B2, 순봉)가 되어버린 경험 등이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들은 타인에게서 공감과 인정을 기대하는 것이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돌아오는 “자기파괴적”(B6, 노을) 행위일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외상적 경험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들은 개인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정부에 묻는 태도에 반발했다. “어느 나라”도 “완벽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B6, 노을)다며 현실과 화해를 시도하기도 하고, 사회구조를 개선하려는 행동으로 인해 “되려 피해가”(B1, 태영)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논리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든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면 안 되며 우리는 단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나아가 이들은 “좌파” 진영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러한 “남 탓”(B4, 진철)이고, 그것은 “너무 이상적”(B2, 순봉)인 주장으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선이라고 믿는다. C그룹의 참여자들 역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적극적인 반론을 펼치진 않았지만 사회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깊은 회의를 드러냈



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C1, 승희)고, “내가 가진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게 의미가 없”(C5, 원재)다는 생각이다.

[진보의] 특징은 이제 어 한 마디로 할 수 있어요 남 탓 [...] 학교 친구들은 아무런 정치적 견해가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여자들은 별로 관심 없으니깐. 근데 그 친구들이 정치적 견해가 없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정치적 견해를 갖게 되면 반드시 보수를 지지한다고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인 게 제 친구들은 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뿌린 만큼만 거둔다. 그게 인생이다. 저도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고(B6, 노을).

여기서 우리는 이상의 진술들이 이들의 현재의 태도와 의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인과적으로 설명해주는 증거가 아니라, 이들이 자신의 태도와 의식을 어떤 생애사의 서사로써 설명하는지를 말해주는 정보임을 주시해야 한다. 이들이 진술한 생애 경험이 진실이라면, 그 경험과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세계관 사이의 관계는 완전히 자의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필연적이진 않다. 그 연결고리는 근본적으로 불확정적이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위와 같은 생애경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특정한 생애경험의 서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개인책임’의 윤리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그 요구는 종종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며 잔인하다. 혐오 받은 경험의 기억이 다른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고, 그 혐오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간주되는 ‘혐오의 새도매저키즘’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단지 타인의 지원의 부재로 인한 삶의 고됨과 고통만이 아니라, 깊은 “모멸감”을 반복해서 느꼈고 분노와 공격성을 누적시켜 왔다고 진술했다. 순봉(B2)은 “자존심에 상처입고 그런 경험이 매일매일”이라고 말한다. 진철(B4) 역시 “어렸을 때” 모멸감을 “거의 항상 느

졌"고, 지금도 일을 하면서 모멸감을 "되게 많이 느꼈던 거 같"다고 말한다. 진철(B4)은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무시 경험이 많고, 이 경험에서 느꼈던 모멸감이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에 관해 거부감을 보이며, "그런 식이라면 나도 사회적 약자"이므로 사회적 약자라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뭔가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낀다. 「일베」 사용자인 38세 남성 순봉은 실제로 매우 깊은 원한을 드러냈다.

항상 그래서 느껴온 감정들이 니들은 내 속마음이나 생각하는 레벨도 잘 모르면서 왜 나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낮은 수준으로 보냐. 근데 그거는 제가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마이너 또는 뒤끝도 심하니깐 어느날 한꺼번에 그거 한꺼번에 그 문쳐 문쳐 가지고 버럭 화낸 적이 굉장히 많아요(B2, 순봉).

공동체의 부재를 경험한 것이 어떻게 공동체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잘 설명해준 것은 흥미롭게도 A그룹의 유진(A2)이었다. 그녀는 일찍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외롭게 노동과 양육을 모두 책임져온 어머니의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다.

어머니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깐 아버지를 그니깐 남편을 굉장히 어린 나이에 뭐 병사로 돌아가시고 나서 병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혼자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양육을 지원해주거나 교육환경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주거나 하지 않고 혼자 너무 외롭게 양육활동을 했던 어머니였던 거죠. 그냥 그분이 보기에는 내가 힘들 때에는 어느 누구도 너 힘들냐 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동체가 싫어. 이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 타인의 공동체라는 삶이 [...] 내가 갖지 못했던, 내가 힘들 때 바라  
봐주지 못했던 공동체 혹은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웬지  
배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감정들을 저변에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A2, 유진).

유진은 세월호 유가족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9세 여성으로, 정치적 입장을 물었을 때 '사람을 존중하는 정치'라고 응답했다. 유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어느 누구도 너 힘들냐 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현실을 보면서 사회에 대한 원한, 타인에 대한 불신을 키워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이후에 또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게 아픈 사람이었"던 자신이 "치료"되는 경험을 통해, "내가 세상이 얘기하는 루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자기 긍정으로, 나아가 타인과 공동체의 긍정으로 자아를 확대해갔다.

이상의 각기 다른 사례들은 사회의 외면, 공동체의 부재를 경험한 외상이 이후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반대하게 만드는 토양이 될 수도 있지만, 피폐한 환경 속에서도 타인이 동행하는 치유의 경험을 통해 더 큰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 VI. 결론

이 연구는 세월호 사건에 대해 공감과 혐오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을 심층면접하여 그들의 관심과 동기, 가치관과 세계관의 내적 구조, 생애사의 서사 구조를 해석적으로 재구성하고자 시도했다. 이 연구

에서 부각된 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세월호 운동의 참여자들과 반대자들은 단지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식 관심과 행위의 동기 자체가 상이했다. 참여자들은 가장 우선적이고 일관되게 세월호 참사 자체의 진실, 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관심의 결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의 참여와 정부여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에 반해 반대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애초에 관심이 없었거나 그 관심이 지속적이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정권이 비판에 직면하게 되자 비로소 세월호 사건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유가족에 대한 혐오 행위 역시 가장 주된 것은 그와 같은 정치적 관심의 맥락 안에 놓여 있었다.

나아가 세월호 활동의 참여자들과 반대자들은 단지 세월호 사건이라는 단일 이슈에 대해서만 태도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일반화된 세계관과 가치관의 측면에서 질적으로 다른 지반 위에 있었다. 세월호 활동 참여자들은 고난 상황에서 타인에게서 인정받고 위로 받은 개인적 경험을 중심에 놓는 세계관 속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참여를 의미화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러한 개인적 동기에서 시작된 참여의 과정에서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과 조우하면서 연대와 공동체의 지평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반면 세월호 활동에 대한 반대자들은 모든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서 각자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고, 사회의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그러한 극단적 개인책임의 윤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전형적으로 자신들의 삶에서 타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경멸받았던 외상적 경험을 깊은 원한을 담아 부각시켰다.

하지만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감이나 혐오냐, 연대냐 적대

나 등과 같은 대조적 전형성의 아래에 놓인 심층의 체험세계와 삶의 과정은 많은 불확정성의 여지와 변칙적 경로들을 보여줬다.

「일베」 이용자인 진철(B4)은 사회의 정의와 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나름의 방식으로 언어적으로 명료화시킬 수 있을 정도로 숙고하는 청년이었고 참사 후 일정 시기 동안 세월호 구조 활동을 하는 꿈을 꿀 정도로 동일시를 했었지만 '기억하라'는 의례화된 담론이 사회의 규범적 강제처럼 다가오며 따라 점차 반발하기 시작한 사례였다. 세월호 이슈에 대한 불관여 입장을 표방한 승희(C1), 원재(C5), 기석(C7) 등도 정치사회적 갈등이 깊어질수록 공감에서 “염증, 신물”로 태도가 변해갔다.

그런가 하면 유진(A2)은 홀로 노동과 양육의 책임을 모두 떠맡아 공동체를 불신하며 살아온 어머니의 영향 하에 자랐지만, 다른 경험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과 호혜적이고 연대적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웠다. 수옥(A5)은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적 지지가 전혀 없는 고립된 육체노동의 삶을 살아왔지만, 세월호 집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회운동의 참여자들을 만나면서 세상으로 나왔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공감을 실천한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격한 혐오와 거부감을 표출한 사람들은 세월호 이슈에 관한 태도의 차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치관과 세계관의 차이를 보여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차이는 주어진 삶의 환경과 생애사의 필연적 산물이 아니라, 종종 의도하지도, 예견하지도 않은 삶의 체험들을 겪어가면서 굽어져 온 긴 과정의 한 중간 지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같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 적잖은 사람은 어쩌면 공감과 혐오라는 선명한 전형성보다는 양자의 다양하고도 어질러진 조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수돌. 2016. "세월호 참사의 정치경제학 비판." 『인물과 사상』 217: 84-105.
- Kang, Su-Dol. 2016. "Sewolho Chamsau Jeong Chikyungjehak Bi Pan." *Inmulgwasasang* 217: 84-105.
- 강원택. 2015.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슈의 영향: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강원택·강신구·한정훈 외. 『2014년 지방선거 분석』. 나남. pp. 15-36
- Kang, Won-Taek. 2015. "2014nyeon Jibangseongeoseo Isyuui Yeonghyang: Sewolho Sageoneul Jungsimeuro." pp. 15-36 in Won-Taek Kang, Shin-Gu Kang, and Jeong-Hun Han et al. *2014nyeon Jibangseongeoseo Bunseok*. Nanam
- 강원택. 2017. "사회적 이슈와 정치 갈등." 이재열·홍찬숙·이현정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오름. pp. 149-177.
- Kang, Won-Taek. 2017. "Sahoejeok Isyuwa Jeongchi Galdeung." pp. 149-177 in Jae-Yeol Lee, Chan-Suk Hong, and Hyeon-Jeong Lee et al. *Sewolhoga Mutgo Sahoegwahagi Dapada*. Oreum.
- 권영빈. 2017. 『머나먼 세월호』. 펼침.
- Kwon, Yeong-Bin. 2017. *Meonameon Sewolho*. Pyeolchim.
- 김동춘. 2015. "국가 부재와 감정정치." 노명우·권명아·이광호 외.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pp. 157-190.
- Kim, Dong-Chun. 2015. "Gukga bujaewa Gamjeongjeongchi." pp. 157-190 in Myung-Woo Nho, Myeong-A Kwon, and Kwang-Ho Lee et al. *Paengmokangeseo Bureooneun Baram*. Hyeonsilmunhwa.
- 김명희. 2015. "세월호 이후의 치유: 제프리 알렉산더의 '외상 과정'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19: 11-53.
- Kim, Myung-Hee. 2015. "Healing after Sewolho: J. Alexander's Perspective on the "Trauma Process."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19: 11-53.
- 김수미. 2015. "고통의 재현, 그 정치성에 대한 단상: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언론과 사회』 23(4): 67-119.
- Kim, Su-Mi. 2015. "The Politics of Representing the Pain of Others Regarding the Sewol Ferry Disaster." *Media & Society* 23(4): 67-119.

- 김영욱·함승경. 2015. “세월호 침몰은 참사인가? 사고인가?: 비판적 담론분석(CDA)을 적용한 세월호 담론 경쟁.” 『홍보학 연구』 19(4): 83-115.
- Kim, Yung-Wook and Seung-Kyung Ham. 2015. “Was the Sewol Ferry Case a Disaster or an Accident?: An Application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9(4): 83-115.
- 김영욱·함승경·김은지. 2017. “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CDA)과 빅데이터 언어네트워크 분석의 결합.” 『한국언론정보학보』 83: 7-38.
- Kim, Yung-Wook, Seung-Kyung Ham, and Eun-Ji Kim. 2017. “Media Discourse Analyses on the Sewol Ferry Incident: The Methodological Integration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Using Newspaper Big Dat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83: 7-38.
- 김왕배. 2014. “트라우마의 치유과정에 대한 사회학적 탐색과 전망.” 『보건과 사회과학』 37: 5-24.
- Kim, Wang-Bae. 2014. “The Prospect of a Sociological Approach to Trauma in Light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Health and Social Science* 37: 5-24.
- 김은미. 2016. “세월호 유가족의 자녀상실 경험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Eun-Mi. 2016. “A Study on Experience of Bereaved Family Members Who Lost Children in the Sewol Ferry Disaster.”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aekseok University.
- 김정한. 2014. “한국사회의 대중과 새로운 정치주체의 형성.” 『황해문화』 85: 86-100.
- Kim, Jeong-Han. 2014. “Hanguksahoeui Daejunggwa Saeroun Jeongchijucheui Hyeongseong.” *HwangHae Review* 85: 86-100.
- 김종연. 2014. “이해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경제와 사회』 104: 81-111.
- Kim, Jong-Yeop. 2014. “Between Understanding and Ideology: Some Considerations on *Sewol Disaster*.” *Economy and Society* 104: 81-111.
- 김태원·정정주. 20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199-224.

- Kim, Tae-Won and Chung-Joo Chung. 2016. "The Comparative Frame Study on the Disaster News Report of the Sewol Ferry Incident." *Journal of Social Science* 27(1): 199-224.
- 김홍중. 2015. "마음의 부서짐: 세월호 참사와 주권적 우울." 『사회와 이론』 26: 143-186.
- Kim, Hong-Jung. 2015. "HeartBreak: Tragedy of Sewol Ferry and Sovereign Depression." *Society and Theory* 26: 143-186
- 누스바움. 2015a. 『감정의 격동: 1. 인정과 욕망』. 조형준 옮김. 새물결.
- Nussbaum, Martha C. 2015a.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translated by Hyong-Jun Cho. Saemulgyul.
- \_\_\_\_\_. 2015b. 『감정의 격동: 2. 연민』. 조형준 옮김. 새물결.
- \_\_\_\_\_. 2015b.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translated by Hyong-Jun Cho. Saemulgyul.
- 레디. 2016. 『감정의 항해: 감정 이론, 감정사, 프랑스 혁명』. 김학이 옮김. 문학과지성사.
- Reddy, William M. 2016. *The Navigation of Feeling: A Framework for the History of Emotions*, translated by Hak-i Kim. Moonji Publishing.
- 막스웰. 2009. 『질적연구설계: 상호작용적 접근』. 이명선·김춘미·고문희 옮김. 군자출판사.
- Maxwell, Joseph A. 2009.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translated by Myeong-Seon Lee, Chun-Mi Kim, and Mun-Hui Goh. Koonja.
- 메이슨. 2010.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옮김. 나남.
- Mason, Jennifer. 2010. *Qualitative Researching*, translated by Du-Seop Kim. Nanam.
- 민중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4. 『416세월호 민변의 기록』. 생각의길.
- Lawyers for Democratic Society. 2014. *416Sewolho Minbyeonui Girok*. Saenggagui Gil.
- 박종희. 2016. "세월호 참사 1년 동안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매체의 정치적 경도." 『한국정치학회보』 50(1): 239-269.
- Park, Jong-Hee. 2016. "Estimation of Media Slants in South Korean News Agencies Using News Repor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50(1): 239-269.



- \_\_\_\_\_. 2017. “왜 세월호 참사는 극단적으로 정치화되었는가: 재난정치의 딜레마.” 이재열·홍찬숙·이현정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오름. pp. 181-226.
- \_\_\_\_\_. 2017. “Wae Sewolho Chamsaneun Geukdanjeongeuro Jeongchihwadoeeonneunga: Jaenanjeongchiui Dillema.” pp. 181-226 in Jae-Yeol Lee, Chan-suk Hong, and Hyeon-Jeong Lee et al. *Sewolhoga Mutgo Sahoegwahagi Dapada*. Oreum.
- 신진욱. 2018. 『한스 요아스, 가치의 생성』. 커뮤니케이션북스.
- Shin, Jin-Wook. 2018. *Hans Joas, Gachiui Saengseong*. Communicationbooks.
- 세월호특조위조사관모임. 2017. 『외면하고 회피했다』. 북꿈마.
- SewolhoTeukjowiJosagwanMoim. 2017. *Oemyeonhago Hoepihaetda*. Bookcomma.
- 윤성이. 2015. “무엇이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황해문화』 88: 40-58.
- Yun, Seongi. 2015. “Mueosi Inyeom Galdeungeul Jeungpoksikineunga.” *HwangHae Review* 88: 40-58.
- 이선민·이상길. 2015. “세월호, 국가, 미디어: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세월호 의견기사에 나타난 ‘국가 담론’ 분석.” 『언론과 사회』 23(4): 5-66.
- Lee, Sun-Min and Sang-Gil Lee. 2015. “The Sewolho, State, and the Medi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on the “Imaginary of the State” Represented in the Opinion Articles of <Chosun-ilbo> and <Hankyoreh>.” *Media & Society* 23(4): 5-66.
- 이완수·배재영. 2015. “세월호 사고 뉴스 프레임의 비대칭적 편향상: 언론의 차별적 관점과 해석방식.” 『한국언론정보학보』 71: 274-298.
- Lee, Wan-Soo and Jae-Young Bae. 2015. “Asymmetric Bias of the Ferry Sewol Accident News Frame Discriminatory Aspects and Interpretive of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1: 274-298.
- 이재열. 2017. “세월호 참사, 시스템 이론으로 본 원인과 대책.” 이재열·홍찬숙·이현정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오름. pp. 17-68.
- Lee, Jae-Yeol. 2017. “Sewolho Chamsa, Siseutem Ironeuro Bon Woningwa Daechaek.” pp. 17-68 in Jae-Yeol Lee, Chan-Suk Hong, and Hyeon-Jeong Lee et al. *Sewolhoga Mutgo Sahoegwahagi Dapada*. Oreum.
- 이현우. 2015. “2014년 지방선거에 세월호 사건이 미친 영향: 정부 책임과

- 정당대응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9(1): 247-268.
- Lee, Hyeon-Woo. 2015. “Influence of the Sewol Ferry Tragedy on 2014 Local Elections: Focusing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and Evaluation of Responses of Political Partie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9(1): 247-268.
- 이현정. 2017.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고통: 표상, 경험, 개입.” 이재열·홍찬숙·이현정 외.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오름. pp. 117-145.
- Lee, Hyeon-Jeong. 2017. Sewolho Chamsawa Sahoejeok Gotong: Pyosang, Gyeongheom, Gaeip.” pp. 117-145 in Jae-Yeol Lee, Chan-Suk Hong, and Hyeon-Jeong Lee et al. *Sewolhoga Mutgo Sahoegwahagi Dapada*. Oreum.
- 장덕진·조병희·이재열 외. 2015.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Jang, Deok-Jin, Byeong-Hee Cho, and Jae-Yeol Lee et al. 2015. *Sewolhoga Uriege Mutda: Jaenangwa Gonggongseongui Sahoehak*. Hanurakademi.
- 정용택. 2016. “세월호를 해석하는 네 가지 프레임: 사고, 사건, 사태 그리고 사회에 관하여.” 김종업·김명희·이영진 외.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 그린비. pp. 166-199.
- Jeong, Yong-Taek. 2016. “Sewolhoreul Haeseokaneun Ne Gaji Peureim: Sago, Sageon, Satae Geurigo Sahwae Gwanhayeo.” pp. 166-199 in Jong-Yeop Kim, Myung-Hee Kim, and Yeong-Jin Lee et al. *Sewolho Ihui Sahoegwahak*. Greenbeebooks
- 정유섭. 2015. 『세월호는 왜?』. 조선뉴스프레스.
- Jeong, Yu-Seop. 2015. *Sewolhoreun Wae?* Chosunnewspress.
- 조병희·이재열·구혜란 외. 2018. 『아픈 사회를 넘어』. 21세기북스.
- Cho, Byeong-Hee, Jae-Yeol Lee, and Hea-ran Koo et al. 2018. *Apeun Sahoereul Neomeo*. 21Segibukseu.
- 지주형. 2014. “세월호 참사의 정치사회학: 신자유주의의 환상과 현실.” 『경제와 사회』 104: 14-55.
- Ji, Joo-Hyoung. 2014. “The Political Sociology of the Sewolho Disaster: The Fantasy and Reality of Neoliberal Capitalism.” *Economy and Society* 104: 14-55.

- 진실의힘세월호기록팀. 2016. 『세월호, 그날의 기록』. 진실의 힘.
- Jinsiruihimsewolhogiroktim. 2016. *Sewolho, Geunarui Girok*. Jinsirui Him
- 진태원. 2015. “세월호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 폭력, 국가, 주체화.” 노명우·권명아·이광호 외.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현실문화. pp.131-154.
- Jin, Tae-Won. 2015. “Sewolhoraneun Ireumi Tteutaneun Geot.” pp. 131-154 in Myung-Woo Nho, Myung-A Kwon, and Kwang-Ho Lee et al. *Paengmokkangeseo Bureooneun Baram*. Hyeonsilmunhwa.
- 최원. 2014. “멈춰진 세월, 멈춰진 국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성과 폭력의 새로운 형상.” 『진보평론』 61: 53-70.
- Choe, Won. 2014. “Meomchwojin Sewol, Meomchwojin Gukga: Sinjayujuujeok Tongchiseonggwa Pongnyeogui Saeroun Hyeongsang.” *The Radical Review* 61: 53-70.
- 테일러. 2015. 『자아의 원천들』. 권기돈·하주영 옮김. 새물결.
- Taylor, Charles Margrave. 2015. *Sources of the Self: The Making of the Modern Identity*, translated by Gi-Don Gwon and Ju-Yeong Ha. Saemulgyul Publishing House.
- 홍성태. 2015. “상품백화점 붕괴와 비라-사고 사회.” 『경제와 사회』 108: 231-253.
- Hong, Seong-Tae. 2015.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Corruption-Accident Society.” *Economy and Society* 108: 231-253.
- 홍주현·나은경. 2015.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보수 중편 채널 뉴스의 피해자 범주화 및 단어 네트워크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59(6): 69-106.
- Hong, Ju-Hyun and Eun-Kyung Na. 2015. “Victim Blaming of Sewol-ferry Disaster on News in Conservative Total TV Programming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9(6): 69-106.
- 황희정. 2018. “양극화된 한국 정치담론과 사회갈등에 관한 분석: 세월호 참사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wang, Hee-Jeong. 2018. “Polarized Korean Political Discourse and Social Divide: With a Focus on Media Report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unpublished MA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Barbalet, Jack M. 1998. *Emoti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A Macrosociological Approach*.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bour, Rosaline. 2013. *Introducing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Calhoun, Craig. 2001. "Putting Emotions in Their Place." pp. 45-57 in Jeff Goodwin, James M. Jasper, and Francesca Polletta (eds.). *Passionate Politic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plan, Amy. 2011. "Understanding Empathy: Its Features and Effects." pp. 3-18 in Amy Coplan (ed.). *Empath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enzin, Norman K. 1983. "A Note on Emotionality, Self, and Inter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2): 402-409.
- Frankfurt, Harry. 1971. "Freedom of the Will and the Concept of a Person." *The Journal of Philosophy* 68(1): 5-20.
- Garrett, K. Richard and George Graham. 2014. "At the Empathetic Center of Our Moral Lives." in Heidi L. Maibom (ed.). *Empathy and Mor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oodwin, Jeff and James M. Jasper(ed). 2004. *Rethinking Social Movements. Structure, Meaning, and Emotion*.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Goodwin, Jeff, James M. Jasper, and Francesca Polletta(ed). 2001. *Passionate Politics. Emotions and Social Movement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uldner, Alvin W. 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2): 161-178.
- Hesse-Biber, Sharlene N. and Patricia Leavy. 2011. *The Practice of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Hittin, Steven. 2003. "Values as the Core of Personal Identity: Drawing Links between Two Theories of Self."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6(2): 118-137.
- Hoffman, Martin L. 2000. *Empathy and Moral Developmen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gnatow, Gabriel. 2008. "Theories of Embodied Knowledge: New Directions for Cultural and Cognitive Sociology."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7(2): 115-135.
- Impey, Gayle. 2012. "Empathy, Motive and Morality: An Inquiry into the

www.kci.go.kr

- Role of Empathy in Ethic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 Joas, Hans. 2000. *The Genesis of Valu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2011. *The Sacredness of the Person: A New Genealogy of Human Rights*. Washington: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Kemper, Theodore. 1991. "Predicting Emotions from Social Rela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4): 330-342.
- Layer, Derek. 2004. *Social and Personal Identity: Understanding Yourself*. London: Sage Publication.
- Maiese, Michelle. 2011. *Embodiment, Emotion, and Cogn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yring, Philipp. 2000.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1-10.
- \_\_\_\_\_. 2015. *Qualitative Inhaltsanalyse: Grundlagen und Techniken*. Weinheim and Basel: Beltz.
- Mead, George Herbert. [1934]1967.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u, Jerome. 1987. "A Tear Is an Intellectual Thing." *Representations* 19: 35-61.
- Rosenberg, Morris. 1990. "Reflexivity and Emotio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3(1): 3-12.
- Stearns, Carol Z. and Peter N. Stearns(ed). 1989. *Emotion and Social Change: Toward a New Psychohistory*. New York: Holmes & Meier.
- Summer-Effler, Erika. 2002. "The Micro Potential for Social Change: Emotion, Consciousness, and Social Movement Formation." *Sociological Theory* 20(1): 41-60.
- Taylor, Charles. 1985. "What Is Human Agency?" pp. 15-44 in Charles Taylor. *Human Agency and Language: Philosophical Paper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dhouten, Warren D. 2007. *A General Theory of Emotions and Social Life*. New York: Routledge.
- Vaisey, Stephen. 2009. "A Dual-Process Model of Culture in Action."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6): 1675-1715.

Von Scheve, Christian and Rolf von Luede. 2005. "Emotion and Social Structures: Toward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35(3): 303-328.

Van Zomeren, Martijn. 2016. *From Self to Social Relationships: An Essentially Relational Perspective on Social Motiv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태수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관심 주제는 연대, 도덕, 해석학적 방법론 등이다.

E-mail: ktsfrank@naver.com

신진욱은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한국의 근대화와 시민사회』(2005, 독일어), 『시민』(2008), 『다중격차: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2016, 공저), 『한스 요아스, 가치의 생성』(2018) 등이 있다. 연구 분야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사회운동, 복지정치 등이다.

E-mail: socioshin@cau.ac.kr

(2019. 11. 18. 투고, 2019. 11. 30. 심사, 2019. 12. 9. 게재확정)

www.kci.go.kr

## **The 'Yellow Ribbon' for the Victims of Sewol Ferry Disaster and the 'Binge Eating Struggle' by the Ilbe-Users: The Typicality of Empathy and Hate and Its Untypical Life-World**

Tae-Soo Kang(M.A., Chung-Ang University)

Jin-Wook Shin(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The two reactions to the Sewol ferry disaster, symbolized by the 'yellow ribbon' and the Ilbe users' 'binge eating struggle,' showed that South Korean society has two faces together: empathy and hate to the weak and vulnerable in society or, more generally, to those who are in need of help of oth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tructures of the internal meaning systems of the contrasting typicalities and the course of action that unfolds from them, this research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who participated in activities for remembering the Sewol disaster and demanding the 'truth,' on the one hand, and those who actively produced and circulated hate discourses about the victims of the Sewol disaster and the sympathetic reactions to them, using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about their primary concerns and motivations and paying particular attention to what kind of world-views, value-orientations, and personal experiences they were introducing and highlighting for justifying their reactions to the Sewol disaster.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yellow ribbon' and 'binge eating

세월호 '노란 리본'과 일베의 '폭식 투쟁':  
공감과 혐오의 전형성과 그 비전형적 생활세계

struggle' did not simply reflect conflicting opinions on the Sewol incident, but were related to more fundamental differences in terms of the degree of the concern about the incident itself, the existence of a willingness to understand the issues, their world-views about what society and other people mean to every individual, and their value-orientations concerning what a society should look like.

**Key Words:** Sewol, Empathy, Hate, Life-world, Ilbe